

1번 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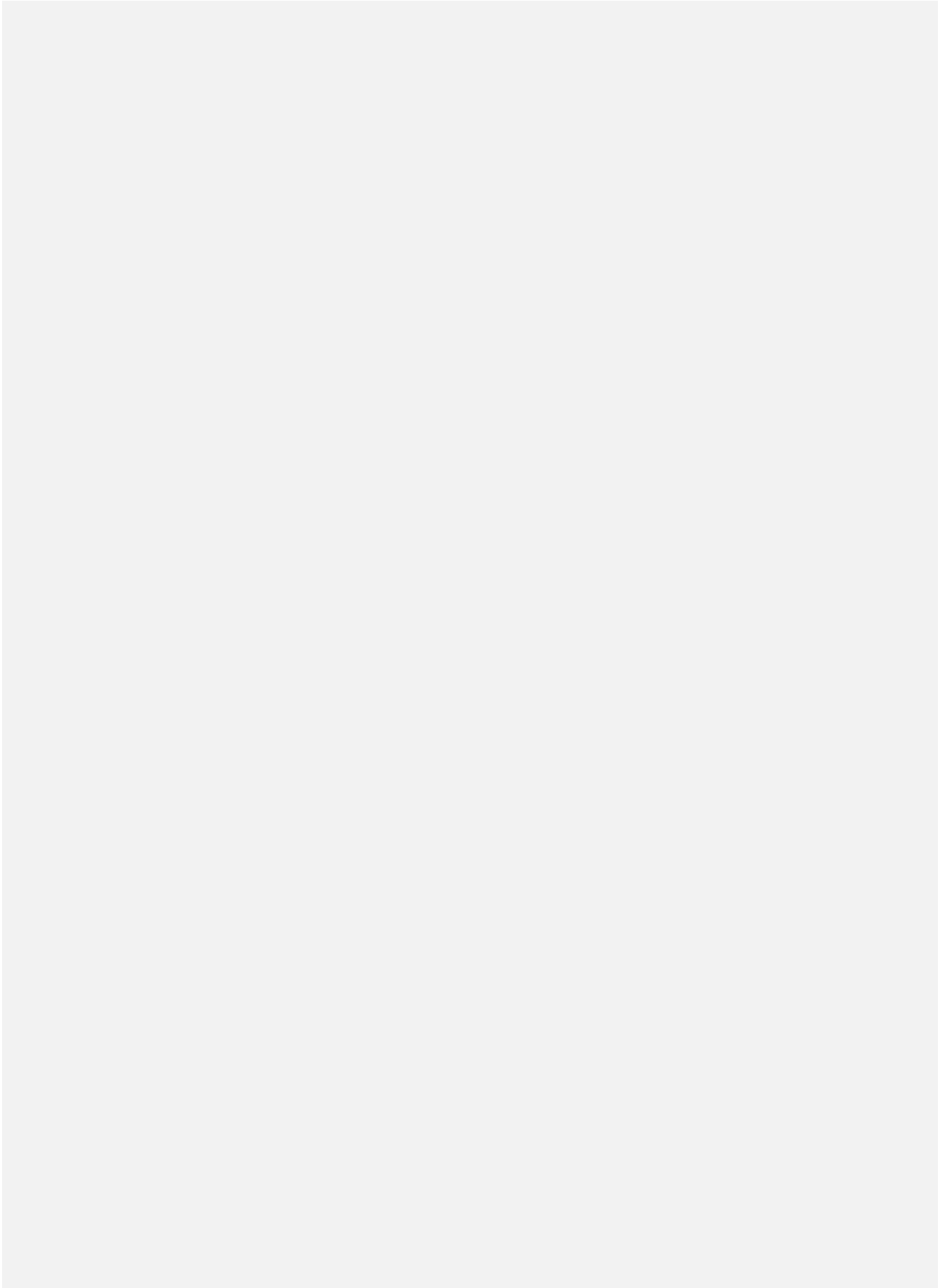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재현은 예술을 규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미 고대 그리스 인들은 예술을 자연의 직접적인 모사나 모방이라고 생각하였고, 예술을 규정하는 미학적인 개념으로 모방을 의미하는 ‘미메시스(mimesis)’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모방의 개념은 다양하게 변화되었고, 그 적용 대상도 달라졌다.

모방 개념을 활용하여 예술을 규정한 대표적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진정한 실체는 개별적인 사물들이며, 온갖 사물들은 형상과 질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형상은 개별적인 사물마다 다르며, 그 형상은 우리에게 그 실체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어떤 대상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경우, 그 실체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관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적인 현상 세계 자체, 나아가 감각계를 모방하는 예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이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로서, 인간은 모방을 통해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또 그런 행위를 통해 쾌감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방이 여러 예술의 공통된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그는 모방적 기술로서의 예술에서 느껴지는 쾌감을 모방 대상에 대한 재인식에서 비롯되는 지적인 성질로 보았다. 예술의 인식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은 이후 오랫동안 서양 미학의 지배적 이론이 되었다.

하지만 감각적 현상 세계의 재현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은 신의 가르침에 대한 재현을 중시했던 중세 시대 예술에서는 필연적으로 한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신의 가르침은 감각 경험을 초월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중세의 예술에서는 감각적인 것을 통해 초월적인 것을 표현하는 상징 개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도래와 더불어 모방은 또다시 예술론의 기본 개념이 되었다. 당시에는 모방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견해는 예술이 눈에 보이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합을 고치고 선별을 행한 뒤에 모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르네상스의 모방론은 예술이 그 모방의 대상인 자연보다 더 완벽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르네상스 예술이 모방하는 대상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연이 아니라 이념적이고 보편적인 자연이며, 모방은 대상의 직접적인 모사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자연의 이상화였다. 따라서 당대 예술가들은 이상적 자연을 구현하려 했던 고대인들의 예술을 모방해야 한다는 새로운 명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18세기 중엽, 고전주의 예술에서는 미를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모든 예술의 근저에 모방의 원리가 놓여 있다고 보았다. 특히 프랑스의 고전주의자 바퇴는 모방을, 인체를 포함한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별한 것, 즉 ‘아름다운 자연의 모방’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모방 개념은 쇠퇴하거나 혹은 다른 용어로 대체되었다. 우선 18세기 후반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발생한 낭만주의 예술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적 감정이나 느낌을 절대시했다. 예술을 예술가의 감정이나 느낌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보는 예술 표현론이 재현 혹은 모방 개념을 대체하게 되었다. 또한 19세기의 사실주의(realism) 예술에서는 사실주의라는 명칭을 이전의 미메시스나 모방을 대신하여 예술의 현실 의존성을 나타내는 단초로 삼았다. 사실주의라는 용어는 이미 19세기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의미로 쓰였는데, 19세기에 쓰인 사실주의에는 근대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었다. 19세기 이전의 형이상학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대체한 자연 과학적인 근대 세계관에서 실재(reality)는 이념적인 형상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현실의 경험

적 대상이었다. 따라서 19세기 사실주의 예술가에게 진정한 예술이란 바로 이러한 구체적 현실로서의 실재를 재현하는 것이었다.



수특에서는

Q1. 각 예술 이론의 견해

A1. 아리스토텔레스, 중세시대 예술,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 낭만주의 예술, 사실주의 예술의 견해에 대해서 묻고 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이론이 무엇을 말하고있는지, 전 시대에서 무엇을 비판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Q2. 플라톤의 예술론

A2. 이데아의 모방이 현실이고, 현실의 모방이 예술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고,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 예술론을 비판하는 문제. 보기에 나타난 정보와 글의 핵심 제재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Q3. 예술 작품을 모방한 예술 작품 제시

A3. 새로운 작품에 대한 고전주의, 사실주의, 낭만주의의 입장에서 훌륭한 작품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

결론: 나열식 지문이었고, 나열된 정보를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례의 제시에도 본문의 지문을 언제든지 응용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다.

핵심 지식

미메시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미메시스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제시되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찬가와 같은 방면의 순화교육엔 미메시스가 필요하지만, 이데아론에서 이데아와 대립하는 사실로 그 한계와 해악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모방에서 기쁨을 느끼는 인간에게 미메시스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인간은 모방으로 지식을 얻는다는 사실로 미메시스를 옹호하였는데, 이 견해는 중세 예술이 도래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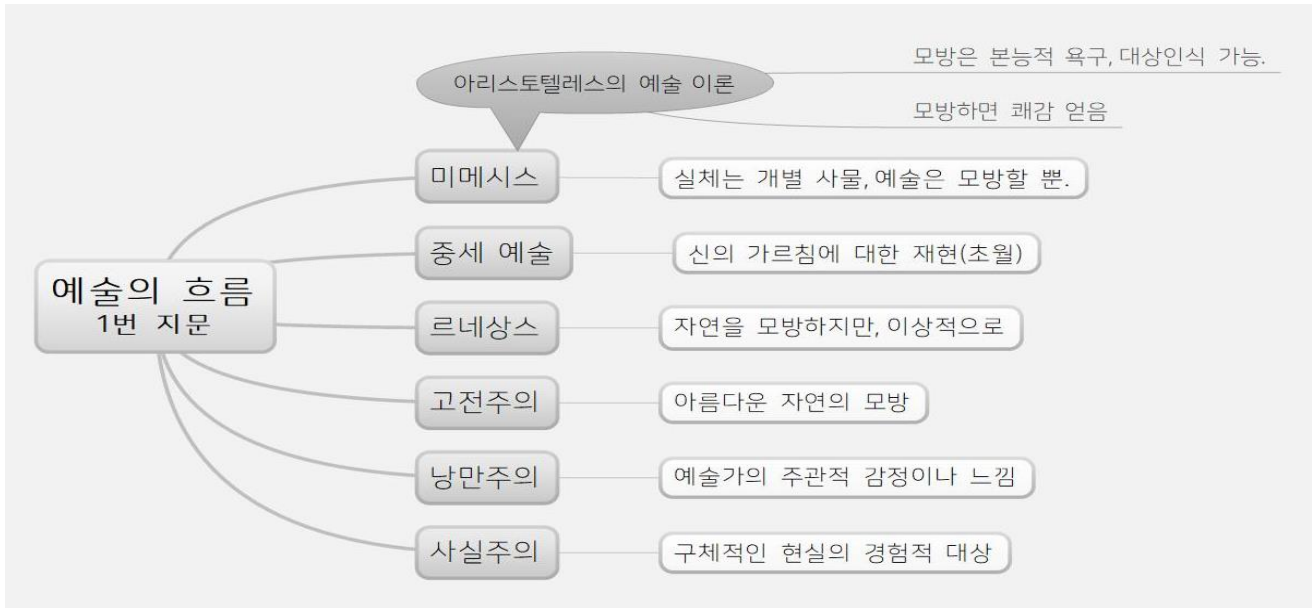
중세 예술: ‘문화의 암흑기’라고도 불리는 중세 예술은 교회가 유럽을 지배하던 시기에 시작되었기에 그 주제가 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는 신≠인간이었던 반면, 중세에선 신>인간이었기 때문에 신이 과하게 강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의해 당시 예술은 예술가를 억압하여 정치적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예술과는 다르게 건축은 교회를 짓기 위해 상당히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중세와 근대 사이의 시기로, 자주 접해본 시기입니다. 재생을 한다는 뜻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술가들에 대한 억압이 끝난 시기입니다. 이에 예술적인 측면에선 많은 발전이 있던 것이 자명하지만, 마녀사냥의 유행으로 과학,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합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고전주의는 르네상스 이후의 사조로, 기존의 비잔틴 양식과 새로 유입된 이슬람 양식의 혼용으로 생겨난 사조입니다. 최상의 상태만을 지향하였고, 이에 통일성과 규범에 의해 규격화된 것이 그 특징입니다. 다비드상이 그 예시입니다. 반면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와 고전주의에 반대하며 예술가의 감상을 훨씬 강조한 사조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였으며, 이성과 합리에 회의하고, 감정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낭만주의는 이후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주의: 리얼리즘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주의는 평가원 모의고사 하이퍼리얼리즘 지문에서도 심층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미메시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모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낭만주의와 함께 1800년대 후반에 유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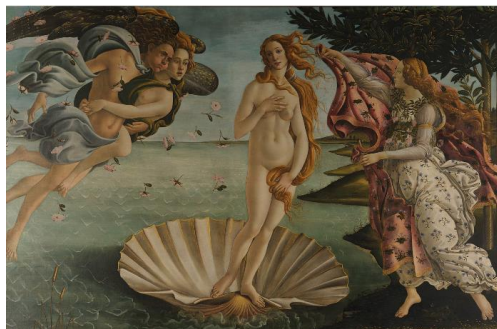
마인드맵



확장 지식

계몽주의, 낭만주의와 철학: 낭만주의의 시작은 독일의 헤르더입니다. 헤르더는 감정, 감성과 역사를 강조하였고, 그의 저서 '인류 역사의 철학적 고찰'은 유명 철학자인 러셀과 헤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헤르더는 계몽주의 시대에 활동하였으며, 그를 시작으로 그가 강조한 감정을 옹호하는 낭만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시기에는 이성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으나, 낭만주의에서는 이성을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그들이 적대시하는 불변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계몽주의의 경우는 엘리트층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진보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계몽주의는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설립 등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주의와 사진: 사실주의의 목표는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사진이랑 목표가 같다는 것에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리얼리즘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실성은 실제 모습이지만, 사실성은 일상 생활에 가까운 성질입니다. 리얼리즘은 사실성을 추구하고, 사진과 하이퍼리얼리즘은 사실성에 현실성까지 추구합니다. 그러면 하이퍼리얼리즘의 의미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인간이 사진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재현성을 갖는 것에서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중세 예술, 르네상스, 고전주의